

공예계열학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 무 근

서울여대 공예과 교수



1. 개 황

우리나라 대학의 공예교육은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의 미술대학에 응용미술과가 생기고 공예와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데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많은 대학에서 공예계열학과를 설치하여 1992년 현재 공예라는 말이 들어간 과나 일반적으로 공예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재료별 명칭의 과가 모두 37개 과가 되었고 학생수는 입학정원이 1,429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 밖에 미술학과나 응용미술과, 생활미술과, 산업미술과 등의 명칭을 가진 과에서도 공예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예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예계열학과에서의 전공 교육은 공예라는 분야가 재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별 전공분야를 다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금속, 도자, 나무, 섬유의 네 가지 주요한 분야가

전공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대강은 2개 정도의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근자에 와서는 한 가지 재료별 공예를 교육하는 곳이 많아져 독립된 과로 분리해 가는 실정이다. 또한 또다른 측면에서의 전문화, 분업화 경향이 반영되어 제작 보다는 디자인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산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하는 경향도 있어서 과의 명칭에도 그러한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과에서의 교육내용은 교양교육과 기초교육 그리고 전공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교양교육(일반교양교육이 아니라 계열별 교양교육의 성격을 띤)은 일반적으로 동서양 및 한국 미술사, 미학, 미술감상, 현대미술론, 미술비평, 색채학, 조형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근자에 와서 컴퓨터를 조형과 연결시켜 교육시키려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인간공학이나 해부학을 가르치는 곳도 있으며 전공과 교양 사이에서 분류의 기준이 애매한 디자인론을 가르치는 대학도 여럿이 있다.

기초교육은 공예 분야가 조형하는 분야이기에 전공에서 재료가 달라지는 것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조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에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해서 교육하고 있다. 소묘, 평면조형, 입체조형 등은 모든 과에서 가르치고 있고 소조 내지는 조각을 가르치는 곳과 특별히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능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표현연습 등의 명칭으로 기초 조형능력을 키우는 곳도 있다.

전공은 각 재료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재료학과 공예론을 가르치고 있고 공예사를 가르치는 대학도 상당히 많다. 전공에서의 특별한 교육은 근자에 와서 제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품유통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한 곳도 있고 전통과 관련시킨 과목을 개설한 곳도 있다.

2. 공예계열학과 교육의 특성

1) 공예의 특성

‘도구를 만드는 동물’로서의 인간은 도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그 도구가 잘 만들어지고 풍성하면 인간의 생활도 그에 비례하여 풍성하게 된다. 공예란 바로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분야에 터하여 있다. 그러나 공예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미술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쓰였고 동양에서는 射, 御, 書, 數, 講, 圍碁, 投壺, 도박, 문학 등을 잘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백성이 사용하는 기물, 즉 생활집기를 만든다는 의미로도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집기를 만드는 일이나 또는 재료를 다루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솜씨라는 의미로 정착되어 사용되어 왔다. 공예는 생활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인간에게는 그 생활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에 인간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인간의 삶과 더불어 존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활집기를 만들 때의 공예현상은 용도, 재료, 손과 도구, 기량과 기술, 노동 그리고 시대라는 요소에 의해서 성립되며 공예의 성

격은 이들 구성요소의 성격이나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또다른 외부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외부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공예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17세기 이후의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이어지는 산업혁명, 대량생산, 대량수요, 전문화, 분업화, 대중화와 같은 외부요인의 엄청난 변화는 공예를 구성하는 내부요소의 내용과 범위를 현저하게 달라지게 하였고 결국 전통적인 모습의 공예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예의 과정이 디자인 과정과 실물제조 과정으로 분화되는 현상이나 재료의 순수한 조형미 추구하고 같은 흐름으로 나타났고 또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히려 종전의 제작과정을 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예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인 재료별 영역 구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예의 강점이기도 하고 또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공예과 교육의 특성

공예라는 영역에서 ‘만든다’는 부분을 제거시킨다면 사실 공예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만드는 예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예과 교육은 만드는 일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했다거나 가슴으로 느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숙련을 통해서만 습득된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야 계획한 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공예과 수업에 같은 과목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계속해서 만들면서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게 되고 이와 동시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공예과 교육의 두번째 특징은 공예라는 것이 재료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상급학년의 전공과정으로 들어가면 특정한 재료만을 취급하게 되는 점이다. 재료간의 성격과 제작과정이 전혀 다르며 제품의 쓰임새도 같지 않아서 어느 한 공예의 기술을

습득했어도 다른 공예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번째로, 공예는 그림이나 조각처럼 자유스럽게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의 필요에 적합한 물품을 제작해야 하는 일이다. 제작자는 타인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하며 물품의 기능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예교육은 저학년에서는 일반적인 조형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나 상급학년에 가서는 이러한 자유스러운 조형을 절제하도록 해야 되는 조화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열거한 공예교육의 특성은 생활집기를 만든다는 전통적인 공예의 입장을 견지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상술한 대로 산업혁명 이후에 공예품 제작의 과정이 분화되어 디자인만 하는 전문직종이 생겨나고 또 한편에서는 재료의 순수한 조형 가능성을 탐구하는 흐름이 공예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진 이후로는 공예교육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능에 구애받지 않은 순수한 형태미의 추구나 작가의 사상이나 정서, 신앙 등을 표현하는 순수미술과 동일한 제작동기나 방법을 따른 것인데, 공예에서 이 흐름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예분야의 일을 재음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첨가된 공예의 모습을 교육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공예교육은 전통적인 공예해석의 입장을 견지한 경우라면 재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건의 올바른 기능을 파악하고 그러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대두된 재료의 순수조형미 추구 내지는 순수예술의 이념이나 방법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경우라면 그 쪽의 논리에 충실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3. 교과목 편성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은 그 과의 교육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올바르고 분명한 교육목표가 세워져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예교육의 목표 설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황변화의 의미 및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다. 이 점은 특히 근자에 공예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이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현상을 보고 공예라는 것은 소멸되었다고 착각하거나 그 본질이 달라졌다고 생각함으로써 올바른 공예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공예란 없어진 것도 그 본질이 변할 것도 아니다. 다만 공예과정의 분화와, 특히 전통적인 공예의 재료에서 출발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의 공예교육의 흐름을 보면 공예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흐름이 전통적인 공예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긴 것이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 교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대학의 자유이겠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한쪽으로 경도된 오늘날의 대학 공예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예의 일차적 의미는 생활집기를 만드는 것이므로 공예교육의 첫번째 목표는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집기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번째의 목표는 재료와 그 다루는 기술의 숙지와 숙련성의 함양이어야 한다. 세번째는 새롭게 형성된 흐름이 전통적인 공예의 재료에서 출발한 했지만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흐름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어중간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쪽의 논리에 따라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교과목 편성 및 운영

교과목의 편성은 명확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용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공예과들은 교육목표가 분명치 않거나 추상적이고 너무 거창하거나 공허하며 심지어는 엉뚱하기조차 하고, 교육목표라고 네세운 곳에서 교육목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명히 공예과인데도 교과목은 디자인의 이름이 붙은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은 공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경우와 순수 조형 활동이 어떠한 이유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 그리고 디자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목표가 생활집기를 잘 만드는 것으로 정해졌을 경우라면 전공과정에서 이에 관련된 교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의식주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문화적 배경을 알게 하는 과목, 전통적인 생활집기의 제작과정을 알게 하는 과목, 현대적인 생산방식과 유통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과목,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제품 제작에 반영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 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과목들은 조형능력을 함양시키는 과목과 미술편향의 과목들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

재료와 그 다루는 기술의 숙지와 숙련성의 함양에 교육목표를 둔 경우라면 재료와 기술에 대한 교과목을 늘려야 한다. 공예가 비록 조형을 하는 분야이지만 재료를 다루고 기술을 함양해야 하는 이상, 재료에 관한 공학적 지식을 외면하고 현대적인 제작기술을 모른다면 현대의 공예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교과목들에는 이러한 계통의 과목들이 눈에 안 띈다. 특히 새롭게 출현한 재료를 취급하는 전공이 없다는 것은 마치 청동기시대에 돌만을 다루거나 철기시대에 청동기만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공예과는 고고학과는 아니다.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흐름을 교육의 방향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것은 공예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

이므로 이름부터도 공예라는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료별 명칭을 가진 과 중에는 공예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과가 꽤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들의 교과목을 보면 아직도 공예에 발목을 잡혀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목표는 공예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데 그것을 구현시켜줄 교과목은 교육목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체계가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과목의 운영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기초과정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는 이 기초과정을 전공으로 한 교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전공을 한 교수가 억지로 떠맡다시피 하여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역시 기초과정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젊은 강사가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을 반복해서 익혀온 석고덧상과 구성편견이 졸업 때까지 그대로 남아서 대학 전 과정을 지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미국의 미술대학 1학년 입학 당시의 소묘는 참으로 영성하기 짝이 없으나, 한 학기가 지난 후에는 놀랄만큼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기초과정 운영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공예교육은 공예에 대한 오인과 공예개념의 오용, 그리고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재빠르게 그에 대처하지 못한 공예계 자체의 문제 그리고 공예분야로부터 분리되어 시작된 새로운 흐름의 성격 등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예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함께 존속한다는 점에서 공예존재의 당위와 공예교육의 타당성을 갖게 된다. 공예를 발전시키고 공예교육을 효과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은 대학에서 공예를 교육하는 이들의 몫이다. ■

임무근/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여대 공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전 추천·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올림픽기념 동서현대도예전과 한국 현대도예가 회전에 출품하였다. 주요 저서로 『도자예술』, 『도예의 기초』, 『도예』 등이 있다.